

새싹포교 20년 ... 묵묵히 한길로

사단법인 동련 창립 20돌

확박한 현실에서도 어린이포교의 길을 걸어온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이하 동련)이 창립 20돌을 맞았다.

동련은 11월 25~26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초발심으로 다시 서는 어린이포교'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포교에 헌신하는 지도자와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창립 20주년 기념 축제 한마당, 어린이지도자연수, 제2회 전국불교교구연동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동련의 전신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5개 지역의 어린이포교 지도자 300여 명이 모여 지난 1986년 10월 3일 출범했다. 이후 전국에서 열리는 어린이포교를 각 지구별로 지원하고, 교리연구 및 교재발간, 어린이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 등의 사업에 주력하며 불교계의 유일무이한 어린이포교 단체로 자리 잡았다.

'동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2005년 11월 사단법인화 하면서다. 동련이 20년동안 매진한 것은 어린이포교를 담당할 인재양성이었다. 지도교사 수급이 어렵고 지

속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포교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7년 화성 신흥사에서 '제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두 차례씩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마련했다. 20년간 2만 8000여 명의 지도

도자들이 어린이포교에 대한 종단의 시각이 변화하길 간절히 염원하며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어린이포교를 여는 사찰이 점점 줄어가던 1996년에는 '전국 사찰에 어린이포교를' 캠페인을 벌이며 전국 사찰에 청원문을 발송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어린

료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과 '부처님 일대기'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 중이며, <어린이포교 지침서>도 수정 보완해 재출간할 예정이다. 2007년에도 <어린이포교 자료집>과 <어린이포교자료집 활용 지침서> 등을 차례차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동련은 한 때 종단의 지원이 줄어들 재정을 건디지 못해 어린이포교 지도자용 잡지 <동련>을 폐간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연 2차례 열고 있는 연수회 역시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법한 수련시설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다. 연수회 개최경비를 지원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 적자가 누적돼왔지만, 연수생에게도 비용 부담을 강요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한 동련이 매달 발행하는 <연꽃>은 불교를 대표하는 어린이포교지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자비제작 되고 있어 종단의 적극적인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은 "앞으로 어린이포교와 지도자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인재 양성·전국 각 지구별 법회 지원

총 2만 8천여명 지도자 연수 거쳐가

재정난 못이겨 잡지 '동련' 폐간도

종단 적극적 재정지원·상설수련관 '과제'

자가 정식 등록해 연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1998년 현 대한불교교사대학의 전신인 동련불교교사대학을 설립해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의 지도교사를 배출하고 있다.

1991년 <월간 유아>, 1992년 <소년 중앙> 등의 불교비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대사회적 활동도 펼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지도자 2000명의 서명을 담은 '어린이포교 활성화 방안'을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앞으로 건의했다. 종단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느낀 지

이법회의 든든한 외호자로 나섰다.

뿐만 아니라 법회에 필요한 자료와 지침서 발간에도 앞장서 왔다. 1987년부터 어린이포교지 <연꽃>을 자비로 발행, 오늘날까지 전국 600여 군데의 어린이포교 개설 사찰에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1990년부터 <어린이포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어린이포교를 위한 설법과 교리연구총서> <어린이포교집> <어린이포교 지침서> 등도 발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창립20주년을 기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 자



11월 15일 개원한 라오스 청소년 도서관에서 문명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사진=지구촌공생회

지구촌공생회, 라오스에 청소년도서관 개관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가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소외지역인 싸이싸니구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개관했다.

지구촌공생회 라오스지부는 11월

15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생청소년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 도서관은 한국NGO봉사단으로 라오스에 파견된 박미연씨의 제안으로 설

치돼 의미를 더한다.

개관식에는 지구촌공생회가 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생유치원생과 학부모, 싸이싸니구내 학교의 교사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60㎡의 공간에 마련된 공생청소년도서관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서적과 역사, 문학, 과학, 철학, 컴퓨터 관련 서적, 라오스 국경교과서 450권을 소장하고 있다.

앞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지원, 주말 놀이교실 및 독서모임 운영 등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구촌공생회는 "라오스 현지의 후원금과 한국에서 보내는 후원금 덕분에 도서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공생청소년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추가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달라"고 요청했다. (02)455-9596

박봉영 기자 byark@buddhapia.com

불교생협연합회 창립 발기

생산자회 100곳·봉은사 등 소비자회 24곳 참가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회 보다 쉽게 연결하려는 불교적 해답 찾기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본격적으로 불교생활협동조합연합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

불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백남석)는 11월 20일 서울 불광사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발기인으로 지리산전환경영농조합, 남원 남농영농조합 등 100곳의 생산자회와, 서울 봉은사, 불광사, 길

상사, 수원포교당, 대구 관오사 등 사찰매장과 시흥 연두농장 등 24개 소비자회가 참여했다.

이날 불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창립준비위는 1년 이내에 생산자회와 소비자회 조직을 갖춘 연합회를 발족시키고, 사찰장터 운동과 친환경공양미 운동, 계절별 특산물판매 등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北 전염병 성홍열 확산"

좋은 벗들, 정부지원 요청

(사)좋은벗들은 북한에서 전염병 '성홍열'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긴급 대책마련과 의료지원을 요청했다.

좋은벗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양강도 혜산에서 발병한 성홍열이 평남 문덕, 강원도 문천, 함북 길주, 청진 등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좋은벗들은 "의료상황이 열악한 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봉영 기자

파라미타 10년사 발간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와 사업실적을 정리한 <파라미타 10년사>를 발간했다.

11월 23일 발간된 <파라미타 10년사>는 △10년간의 다양한 사진을 통해 살펴보는 '파라미타 10년 모습 돌아보기' △전국연합캠프,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국제교류활동 등 중앙본부 주요사업 소개 △전국 11개 지부의 차별화된 활동과 지방발족 역사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이은비 기자

능인선원 YBA 겨울캠프

능인선원 YBA(Young Buddha Association)는 내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겨울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YBA 겨울캠프는 필리핀 파나이섬 일로일로시티 인근 뉴 루세나에서 뉴 루세나 공업대학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지역 빈곤층 어린이 영양관리, 민간의 학연구소 건축공사 참여, 영어로 진행되는 현지인과의 문화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뉴 루세나 공대 학장이 발행하는 봉사활동인증서가 주어진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12월 4일 마감된다. (02)6414-1034

박봉영 기자

효봉 스님 수행처 공개

금강산 법기암터 내달 순례

통합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효봉 대종사의 수행처이자 오도지(悟道地인)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터가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현대사산 및 북측 관계자와 최근 법기암터 공개에 합의하고 11월 사전 답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최근 낙성식을 봉행한 금강산 신계사 및 효봉 스님 오도지 법기암터를 순례하는 시범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신청마감은 12월 1일, 동참금 33만원. (02)2011-1859-60

남동우 기자

'올해의 인재상' 후보 추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올해 불교계를 빛낸 재가불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2006 올해의 인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후보자 추천서와 이력서, 관련 부문 실적 자료 등을 첨부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735-2428

남동우 기자

동국대 산하학교 합동 수계법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영배)는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동국대 체육관에서 산하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 1300여명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가장 목탁리를 높이고 있는 단체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11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호계원장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권능을 이용해 원죄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심판을 내린 것은 호계원의 권위 실추 뿐만 아니라 좋지

숨방망이 판결

못한 사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종단의 사법기관이 권능을 이용해 '감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 가혹한' 세태를 따른다면 종단의 기강과 질서 확립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제14대 개원 총회인 172회

정기중앙총회에서 호계원의 숨방망이 판결이 도마위에 올랐다. 11월 23일 호법부 총책집의에서 보인 스님은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의 형량이 크게 다른 것을 두고 호법부장 심우 스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예전에 사회 일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이란 말이 떠돌았다. 가진자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돈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다는 이 말속에는 권력·재물 때문에 비뚤어진 판결에 대한 자조와 탄원이 섞여 있다.

세속을 떠난 승가에서조차 이같은 법칙(?)이 통용된다면 과연 불자들은 스님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김두식(취재부 기자)

결 의 문

지난 2006년 10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 대한 공주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호국불교의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온 대한불교조계종은 국가의 엄정한 법 집행에 존중하며, 공정한 법집행과 적용만이 국가와 정의의 바로 세울 수 있는 첩경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종교의 영역도 예외될 수 없으며, 종교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 하지만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도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에 기반하여야 하는 바, 사회와 국가가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의 정화를 담당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정신적인 귀의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성한 도량을 야간에 강제로 짓밟은 행위는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폭거이다. 더구나, 대한불교조계종의 교구본사로 수많은 승려와 신도가 교육받고 수행하고 있는 도량을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한 행위는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히 훼손한 법난(法難)이자 종교의 존재와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최고 대의기구인 중앙총회의원 일동은 공주지방검찰청의 마곡사 야간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검찰총장의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 또한, 금번 사건이 종단 내부의 자체적인 정화 절차와 의지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외부기관에 고발하여 종단의 위상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일부세력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점을 깊이 개탄하며, 중앙총회의원이 앞장서 화합으로 상생하는 종단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불기 2550(2006년) 11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일동